

사업체규모별 일자리 변동과 특징

김복순*

I. 서론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고용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시아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미국경제는 2010년 9월 실업률이 9.6%를 기록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생산과 소비 등 주요 내수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최근의 회복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신흥국들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면서 IMF는 2010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2010년 4월) → 4.6%(2010년 7월) → 4.8%(2010년 10월)로 상향조정하는 등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완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

201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광공업은 전월대비 -4.2%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5% 소폭 증가하였으며,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2.0%p 하락한 79.5%를 기록하는 등 경기확장세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2010년 노동시장은 7월 이후 취업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2010년 1~10월 동안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312천 개 증가하였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는 361천 개나 되었다. 이들 일자리는 상용직이 주도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인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0년 경기회복과 더불어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늘어난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의 고용변동, 특히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구조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1) 한국개발연구원(2010. 11), 『KDI 경제동향』.

Ⅱ. 사업체규모별 고용변동

2010년 노동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1~10월 동안 전체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312천 개 증가하였고, 증가한 일자리는 모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창출되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상용직 일자리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동기간 동안 703천 개의 상용직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을 보면 2010년 들어 일자리 증가는 300인 미만 중소기

〈표 1〉 사업체규모별 고용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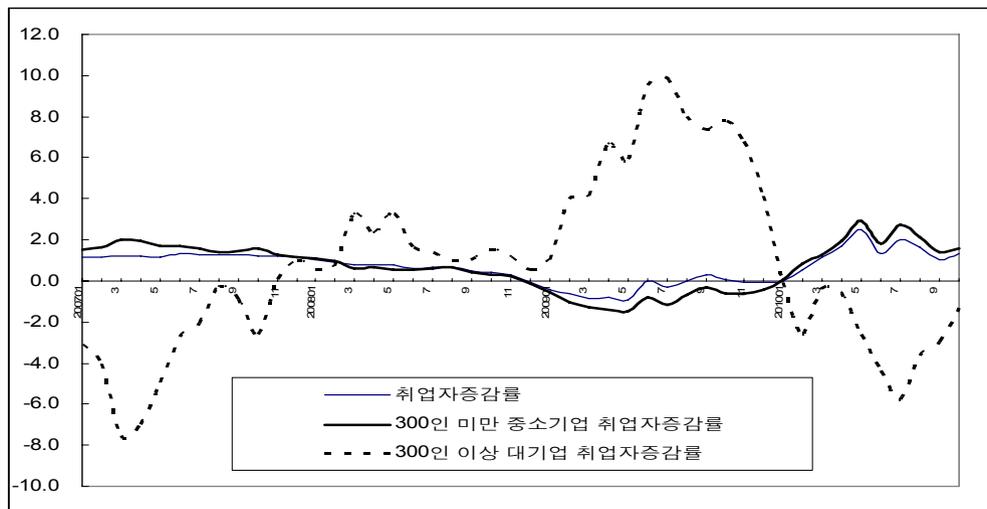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전 체	23,433	282	23,577	145	23,506	-72	23,420	283	23,587	167	23,503	-83	23,815	312
300인 미만	21,594	337	21,711	117	21,522	-189	21,584	351	21,721	137	21,518	-203	21,879	361
상용직	6,937	440	7,304	366	7,601	298	6,910	447	7,287	378	7,554	266	8,256	703
300인 이상	1,839	-55	1,866	28	1,983	117	1,836	-68	1,866	30	1,986	120	1,937	-49
상용직	1,683	-24	1,703	20	1,788	85	1,680	-31	1,703	23	1,790	88	1,779	-1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1〕 사업체규모별 취업자증감률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취업자증가율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 중소기업의 산업별·규모별 고용변동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전 체		21,594	337	21,711	117	21,522	-189	21,584	351	21,721	137	21,518	-203	21,879	361
산 업	공공	519	5	534	15	648	114	518	-2	539	22	649	110	585	-63
	민간	21,075	331	21,177	101	20,874	-303	21,067	353	21,182	115	20,869	-313	21,293	424
	농림어업	1,721	-58	1,686	-36	1,646	-40	1,750	-57	1,702	-47	1,686	-16	1,595	-91
	광업	14	3	18	5	17	-1	13	2	18	5	18	-1	15	-2
	제조업	3,291	-5	3,283	-8	3,217	-67	3,292	-4	3,290	-2	3,205	-85	3,404	199
	전기가스 등	62	6	67	5	73	6	61	7	67	6	73	6	58	-14
	하수폐기물 등	61	-0	65	4	70	4	60	-1	65	5	70	4	63	-6
	건설업	1,812	19	1,764	-48	1,662	-102	1,816	28	1,769	-48	1,662	-106	1,706	43
	도소매업	3,595	-19	3,558	-37	3,531	-26	3,591	-24	3,559	-32	3,526	-34	3,527	1
	운수업	1,147	57	1,148	2	1,154	5	1,144	64	1,149	5	1,147	-2	1,196	49
	숙박 및 음식점업	2,022	-3	2,027	5	1,919	-108	2,021	-2	2,027	6	1,924	-103	1,868	-56
	출판, 영상, 방송 등	532	-21	528	-4	534	6	534	-22	529	-5	532	3	547	15
	금융 및 보험업	715	19	743	28	693	-49	710	14	743	34	688	-55	723	35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1	10	478	-23	487	10	502	10	475	-27	485	10	504	18
	전문, 과학 등	629	22	652	22	683	31	630	28	647	17	680	32	708	28
	사업시설업	917	138	940	23	897	-43	910	144	936	26	897	-39	972	74
	교육서비스업	1,641	38	1,673	32	1,708	36	1,640	45	1,674	34	1,704	29	1,679	-25
	보건업	608	40	697	89	852	155	602	37	686	83	841	156	997	156
	예술스포츠 등	354	-6	399	46	372	-27	350	-9	393	43	375	-18	365	-10
	협회단체	1,283	72	1,292	9	1,208	-84	1,272	72	1,290	18	1,205	-85	1,213	8
가구내 고용활동	161	23	150	-11	146	-3	160	23	151	-9	147	-3	149	2	
국제 및 외국기관	8	-3	9	1	4	-5	8	-3	10	2	5	-5	4	-1	
규 모	1~4인	10,055	4	9,976	-79	9,536	-440	10,068	11	9,996	-72	9,579	-417	9,522	-56
	자영자	4,481	-19	4,443	-38	4,193	-250	4,493	-20	4,456	-38	4,221	-234	4,118	-103
	5~9인	3,189	87	3,219	30	3,199	-20	3,186	98	3,214	28	3,187	-27	3,313	126
	10~29인	3,650	124	3,722	73	3,842	120	3,634	113	3,715	81	3,831	116	3,930	99
	30~99인	3,143	109	3,199	55	3,312	114	3,133	107	3,201	69	3,292	91	3,462	171
100~299인	1,557	13	1,595	38	1,633	37	1,564	22	1,596	32	1,629	34	1,651	2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대상 조사로서 사업체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정보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세는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2010년 1~10월 현재 민간부문에서 전년동기대비 424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6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09년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으로 1만 6,508개 기업에 3만 2,860명이 인턴으로 채용되었으며, 인턴 만료자 8,685명 중 7,050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정규직 전환율 81.2%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는 2010년 1~10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63천 개가 사라졌으며, 이 중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23천 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세는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주도하고 있다. 2010년 들어 제조업의 일자리는 ‘+’로 전환하며 2010년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2010년 1~10월 동안 제조업의 일자리는 173천 개 증가하였으며, 특히 300인 미만 제조업에서 199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인 사업시설관리업에서의 일자리(74천 개)는 모두 300인 미만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자리는 대부분 상용직 일자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2010년 1~10월)는 임금근로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상용직근로자(703천 개)의 증가는 괄목할 만한 규모이다. 이에 반해 동기간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의 일용직 근로자 164천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가세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1~4인 규모 영세사업장에서의 일자리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영자 중심의 일자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용

〈표 3〉 중소기업의 종사상지위별 고용변동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전 체	21,594	337	21,711	117	21,522	-189	21,584	351	21,721	137	21,518	-203	21,879	361
임금	14,133	475	14,341	207	14,470	130	14,099	492	14,326	228	14,424	98	14,983	558
상용직	6,937	440	7,304	366	7,601	298	6,910	447	7,287	378	7,554	266	8,256	703
임시직	5,041	54	4,938	-103	4,926	-12	5,040	71	4,939	-100	4,914	-26	4,933	20
일용직	2,155	-19	2,099	-56	1,943	-156	2,149	-26	2,100	-49	1,957	-142	1,793	-164
비임금	7,461	-138	7,370	-91	7,052	-318	7,486	-141	7,395	-91	7,093	-301	6,896	-197
고용주	1,562	-70	1,527	-35	1,517	-10	1,562	-71	1,530	-33	1,510	-20	1,500	-9
자영자	4,487	-15	4,443	-44	4,194	-249	4,501	-13	4,456	-45	4,222	-234	4,119	-103
무급가족종사자	1,412	-53	1,400	-12	1,341	-59	1,423	-57	1,409	-14	1,361	-47	1,277	-8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4〉 고용보험 사업장수(신규·소멸)와 증감률

(단위: 개소, %)

	2010년 9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체 사업장수	신규	소멸	전체 사업장수	신규	소멸	전체 사업장수	신규	소멸
전 체	1,387,765	45,638	15,788	0.4	-26.0	-57.4	2.2	-22.0	-47.8
300인 미만	1,383,149	45,564	15,751	0.4	-26.0	-57.4	2.2	-22.0	-47.8
5인 미만	970,847	35,095	11,773	-0.7	-28.2	-59.5	2.5	-21.9	-48.8
5~9인	203,911	5,386	2,013	4.2	-16.4	-50.6	1.6	-18.7	-42.8
10~29인	147,993	3,815	1,493	2.9	-16.5	-48.5	1.5	-24.7	-45.8
30~99인	47,188	1,027	394	0.5	-27.1	-51.4	1.3	-32.7	-49.4
100~299인	13,210	241	78	0.2	-14.2	-49.4	1.2	-15.1	-38.1
300인 이상	4,616	74	37	0.3	-3.9	-31.5	-0.2	-10.8	-32.7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호.

보험 적용사업장수와 비교해도 확인이 된다. 즉 2010년 9월 기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1,388천 개소로 이는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5인 미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만이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인 미만 신규사업장의 감소와 더불어 5인 미만 소멸사업장이 증가한 결과이다.

〈표 5〉 사업체규모별·근속연수별 임금근로자 변동 추이

(단위: 천 명)

		2007		2008		2009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300인 미만	소 계	14,133	475	14,341	207	14,470	130	14,099	492	14,326	228	14,424	98	14,983	558
	1년 미만	5,938	43	5,792	-146	5,835	44	5,946	81	5,786	-159	5,799	12	6,026	227
	1~2년 미만	2,142	164	2,112	-29	2,043	-69	2,137	170	2,117	-20	2,047	-70	2,049	2
	2년 이상	6,054	268	6,437	383	6,592	155	6,016	240	6,423	407	6,579	156	6,908	329
300인 이상	소 계	1,837	-55	1,866	29	1,983	118	1,834	-68	1,865	31	1,986	121	1,937	-49
	1년 미만	240	-29	250	10	278	27	240	-34	248	8	275	27	261	-14
	1~2년 미만	158	-19	151	-7	162	11	159	-20	153	-6	164	11	148	-16
	2년 이상	1,438	-7	1,464	26	1,543	79	1,435	-14	1,464	29	1,547	83	1,528	-19
<20대 연령층>															
300인 미만	소 계	3,266	-17	3,153	-113	3,083	-70	3,269	-15	3,165	-104	3,082	-83	3,057	-25
	1년 미만	1,656	-22	1,565	-91	1,564	-1	1,662	-7	1,572	-90	1,555	-17	1,568	13
	1~2년 미만	691	46	654	-36	613	-42	689	44	659	-30	616	-42	597	-20
	2년 이상	919	-41	933	14	906	-27	918	-52	934	16	911	-23	893	-18
300인 이상	소 계	428	-24	433	5	410	-22	430	-25	432	2	414	-18	387	-27
	1년 미만	123	-23	134	11	136	2	123	-26	133	11	136	2	126	-9
	1~2년 미만	87	-15	86	-1	85	-1	88	-14	85	-4	85	1	76	-9
	2년 이상	218	14	213	-5	189	-24	219	16	214	-5	193	-21	185	-9

〈표 6〉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이직사유 비중(2010년 9월 기준 vs. 2009년 9월 기준)

(단위: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기타
			소계	전직, 자영업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가사 사정	질병, 부상, 노령 등	징계 해고	기타 개인 사정	정년 퇴직	소계	회사 이전 등 근로 조건 변동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폐업, 도산, 공사 중단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계약 기간 만료, 공사 종료		
2010. 9월	전체	61,232	2,951	13	567	1,010	71	622	668	50,322	973	29,481	2,452	3,839	13,577	7,959	
	300인 미만	51,949	2,142	10	413	753	33	523	410	43,603	883	27,064	2,431	3,626	9,599	6,204	
	300인 이상	9,283	809	3	154	257	38	99	258	6,719	90	2,417	21	213	3,978	1,755	
	전체	100.0	4.8	0.0	0.9	1.6	0.1	1.0	1.1	82.2	1.6	48.1	4.0	6.3	22.2	13.0	
	300인 미만	100.0	4.1	0.0	0.8	1.4	0.1	1.0	0.8	83.9	1.7	52.1	4.7	7.0	18.5	11.9	
	300인 이상	100.0	8.7	0.0	1.7	2.8	0.4	1.1	2.8	72.4	1.0	26.0	0.2	2.3	42.9	18.9	
2009. 9월	전체	100.0	5.4	0.0	0.9	2.0	0.1	1.4	0.9	84.2	2.6	54.2	4.2	5.3	18.0	10.4	
	300인 미만	100.0	4.8	0.0	0.7	1.8	0.1	1.4	0.7	85.8	2.7	58.5	4.8	5.3	14.5	9.4	
	300인 이상	100.0	8.8	0.0	1.9	3.3	0.1	1.5	2.1	74.9	1.7	28.7	0.2	5.0	39.3	16.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호.

한편 국내 경기가 2010년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는 등 회복국면에 접어 든 시기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일자리는 2010년 1~10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49천 개 가 사라졌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고용사정이 좋지 않았던 2009년 전년동기대비 120천 개 증가한 것과 상당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9년에는 정부가 실시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 등에 기인하여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 들어서는 2009년의 기저효과와 채용규모의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5>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1년 미만 근속자(=신규채용)가 2010년 1~10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14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서의 신규채용이 동기간 227천 명 증가한 것과 대비를 보이고 있다.

Ⅲ.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하는 산업의 고용구조

1. 제조업에서의 생산과 일자리 변동

2010년 일자리 특징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제조업에서의 고용증가세이다. 2010년은 제조업에서의 고용창출력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2010년 이전까지 마이너스 고용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2010년 3/4분기 제조업 부문의 고용탄력성은 0.700으로 2010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3/4분기 현재 국내경기의 수출호조로 제조업의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9.9%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지수 또한 전년동기대비 3.8%p 증가한 82.6%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0년 들어서면서 고용사정은 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29천 명 증가를 시작으로 2010년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97천 개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10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173천 개의 일자리가 제조업 부문에서 창출되었으며, 이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특히 상용직 일자리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다. 직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직종, 장치, 기계조작 등과 단순노무직종에서 각각 32천 개, 56천 개, 73천 개, 41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10월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 속내를 보면, 상용직이 전년동기대비 186천 개 증가한 반면 일용직 일자리는 30천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미만 제조업 부문에서 창출된 상용직 일자리를 보면 장치, 기계조작 등과 단순노무종사자가 각각 66천 개, 35천 개나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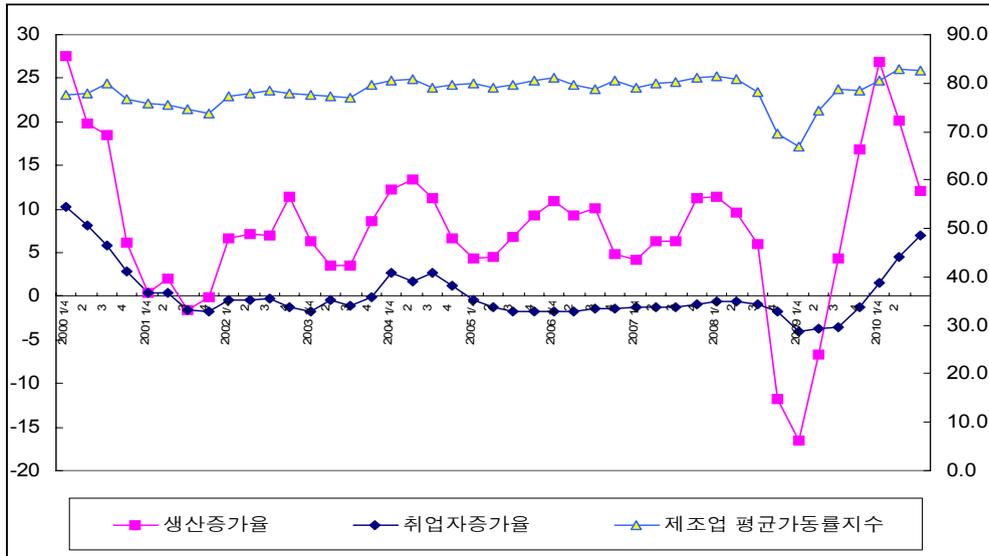
〈표 7〉 제조업의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 %)

	제조업			전산업		
	취업자증가율	성장률	고용탄력성	취업자증가율	성장률	고용탄력성
2008. 1	-0.4	8.9	-0.050	0.9	5.5	0.167
2008. 2	-0.8	8.3	-0.102	0.7	4.4	0.168
2008. 3	-1.3	5.3	-0.245	0.6	3.3	0.184
2008. 4	-2.6	-9.4	0.273	0.2	-3.3	-0.069
2009. 1	-4.1	-13.6	0.299	-0.6	-4.3	0.148
2009. 2	-3.8	-7.2	0.519	-0.6	-2.2	0.257
2009. 3	-3.6	1.7	-2.120	0.0	1.0	-0.004
2009. 4	-1.2	13.0	-0.094	0.0	6.0	-0.003
2010. 1	1.6	20.7	0.077	0.6	8.1	0.072
2010. 2	4.5	18.0	0.248	1.8	7.2	0.255
2010. 3	6.9	9.9	0.700	1.6	4.5	0.349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2] 제조업 평균가동률지수 · 생산증가율 · 취업자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8〉 제조업에서의 사업체규모별 일자리변동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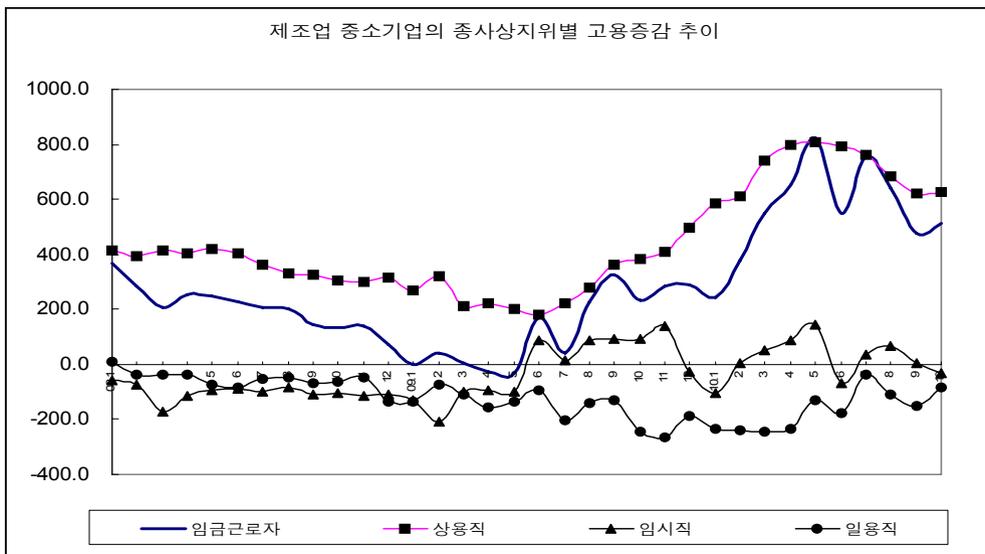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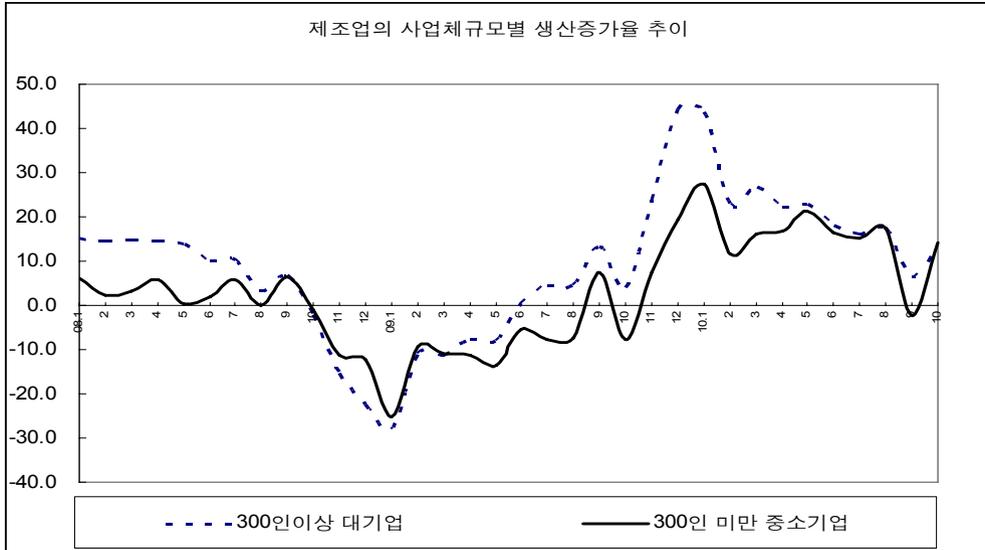
		2007	2008	2009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300인 미만	전 체	3,291	-5 3,283	-8 3,217	-67 3,292	-4 3,290	-2 3,205	-85 3,404	199
	상용직	1,681	91 1,736	55 1,795	59 1,681	97 1,735	54 1,791	56 1,977	186
	임시직	757	-66 706	-51 642	-64 765	-63 714	-51 638	-76 646	8
	일용직	261	-12 251	-10 220	-31 258	-17 251	-7 223	-28 193	-30
	관리자	69	13 58	-10 57	-2 69	15 59	-10 56	-3 57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39	19 243	5 224	-20 237	18 245	8 224	-20 256	32
	사무 종사자	390	3 414	24 448	34 392	4 414	22 447	33 499	52
	서비스 종사자	5	0 8	3 7	-1 5	0 7	2 7	-0 6	-1
	판매 종사자	42	7 39	-3 33	-6 43	8 41	-2 33	-8 43	1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0	-0 0	-
	기능원 및 관련 등	196	13 246	50 243	-4 197	12 245	48 245	0 236	-9
	장치, 기계조작 등	589	15 567	-21 608	40 587	17 565	-22 606	42 672	66
	단순노무 종사자	151	21 160	9 176	16 151	23 160	9 173	13 208	35
300인 이상	전 체	-3	34 -3 47	13 37	-2 33	-4 48	15 48	0 -27	
	상용직	695	-31 649	-46 601	-48 698	-32 655	-42 606	-49 580	-27
	임시직	25	-5 27	2 18	-9 23	-8 28	4 18	-10 17	-1
	일용직	3	-1 4	0 1	-2 3	-1 3	0 2	-2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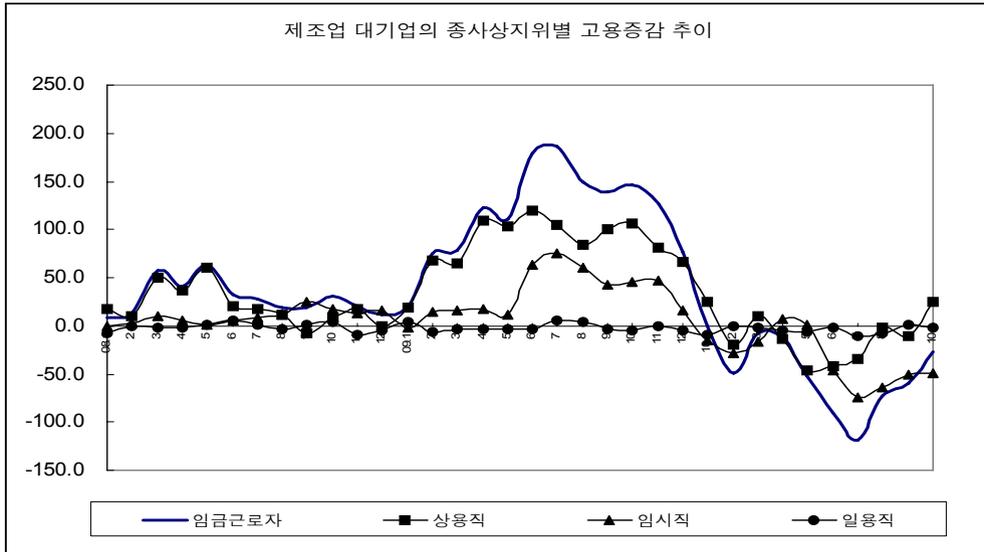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편 제조업에서의 생산증가율을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2010년 10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 격차는 0.8%p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12월 기준 24.6%p로까지 커졌던 대기업과의 격차와 비교해 보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림 3] 제조업의 사업체규모별 생산증가율 및 종사상지위별 일자리 증감을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각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기업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27천 개 사라졌는데 대부분 상용직 일자리였다.

2010년 1~10월 동안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전체 : 173천 개, 300인 미만 중소기업 : 199천 개)는 2009년 동기간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제조업내 생산과 고용비중이 높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의 생산 및 고용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2010년 고용성장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 의존한 관계로 타 산업에서의 고용성장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업별 고용창출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부표 2와 부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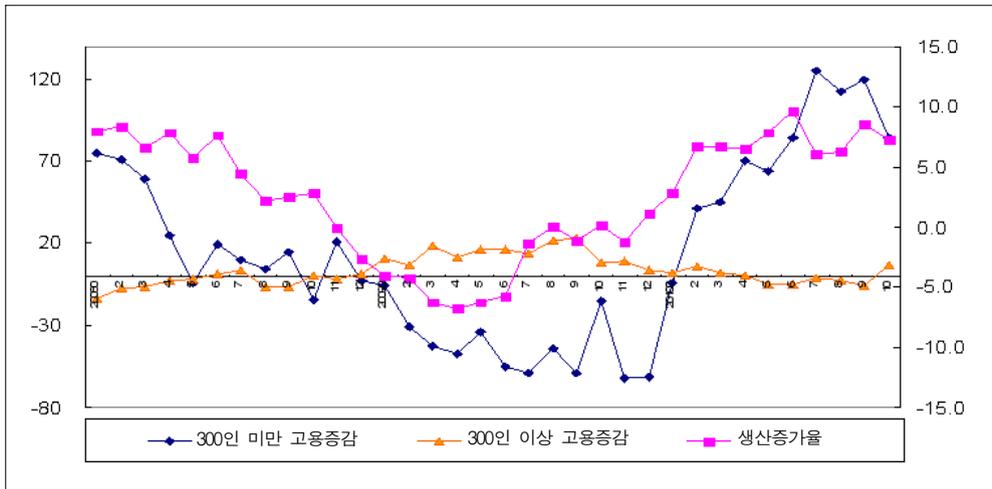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의 생산과 일자리 변동

300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의 생산증가율은 2010년 10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하였으며, 2010년 6월에는 전년동월대비 9.7%까지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의 생산 증가와 더불어 동 산업에서 2010년 1~10월 평균 74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일자리인 것으

〔그림 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과 사업체규모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의 사업체규모별 일자리 변동 추이

(단위 : 천 명)

		2007		2008		2009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300인 미만	전 체	917	138	940	23	897	-43	910	144	936	26	897	-39	972	74
	상용직	405	81	425	20	464	39	402	84	424	22	459	35	570	111
	임시직	339	35	342	3	308	-34	335	36	338	3	316	-22	268	-49
	일용직	124	18	118	-6	74	-44	124	20	119	-5	73	-46	82	10
	관리자	12	4	8	-3	10	2	11	4	8	-3	10	1	12	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	1	22	6	19	-3	14	-1	22	7	20	-2	22	2
	사무 종사자	82	13	76	-6	92	16	83	15	73	-10	92	18	104	12
	서비스 종사자	32	8	38	6	37	-1	31	8	39	7	38	-1	47	9
	판매 종사자	18	12	18	0	21	3	17	11	18	1	20	2	24	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	-1	2	2	4	2	0	-1	2	2	4	2	4	-1
	기능원 및 관련 등	28	0	41	13	42	2	27	-2	40	14	43	2	50	8
	장치, 기계조작 등	40	6	40	0	41	0	40	6	41	0	40	-1	53	13
	단순노무 종사자	179	38	180	1	197	17	178	42	180	2	192	12	254	62
300인 이상	전 체	37	-3	34	-3	47	13	37	-2	33	-4	48	15	48	0
	상용직	32	2	30	-2	39	10	32	4	29	-3	40	11	44	4
	임시직	4	-5	4	0	6	3	4	-6	4	-1	6	3	4	-3
	일용직	1	0	1	0	1	1	1	0	0	0	2	1	0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상용직 일자리는 동기간 111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변화를 보면, 제조업과 유사하게 상용직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임시직 일자리가 49천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용직 일자리는 10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상용직 일자리를 직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유사하게 장치, 기계조작 등과 단순노무종사자가 각각 13천 개, 62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의 상용직 일자리를 주도하는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인 사업시설관리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2010년 11월 2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규제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본고에서 확인했듯이 국내경기가 회복기조인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고용창출은 중소기업에 비해 미비하다. 반면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속내를 보면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인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장치, 기계조작 직종과 단순노무직종에서의 일자리가 주도적이어서 괜찮은 일자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의 인력부족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상반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의 인력부족률은 3.8%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0.8%p 증가한 것이다. 지금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대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KLI**

〈부표 1〉 사업체규모별·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 변화

(단위: 천 명, %)

		고용증감								비 중							
		2007	2008	2009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2007	2008	2009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전체	전 체	282	145	-72	283	167	-83	3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416	386	383	416	400	354	692	36.8	38.2	39.9	36.7	38.1	39.8	42.1		
	임시직	29	-93	22	44	-92	9	-14	22.1	21.5	21.7	22.1	21.5	21.7	21.3		
	일용직	-26	-57	-158	-36	-49	-144	-168	9.3	9.0	8.4	9.3	9.0	8.4	7.6		
	고용주	-70	-35	-10	-71	-33	-20	-9	6.7	6.5	6.5	6.7	6.5	6.4	6.3		
	자영자	-15	-44	-249	-13	-45	-234	-103	19.1	18.8	17.8	19.2	18.9	18.0	17.3		
	무급가족종사자	-52	-13	-60	-57	-15	-48	-85	6.0	5.9	5.7	6.1	6.0	5.8	5.4		
5인 미만	소계	4	-79	-440	11	-72	-417	-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57	34	37	69	36	31	96	5.1	5.5	6.1	5.0	5.4	6.0	7.0		
	임시직	28	-1	-93	35	-3	-87	43	17.2	17.3	17.1	17.1	17.2	17.1	17.6		
	일용직	14	-42	-73	13	-38	-72	-18	9.9	9.5	9.2	9.8	9.5	9.2	9.0		
	고용주	-28	-26	-8	-29	-21	-14	9	10.6	10.4	10.8	10.5	10.4	10.7	10.9		
	자영자	-19	-38	-250	-20	-38	-234	-103	44.6	44.5	44.0	44.6	44.6	44.1	43.2		
	무급가족종사자	-49	-7	-52	-56	-8	-39	-82	12.8	12.8	12.8	12.8	12.9	13.0	12.2		
5~99인	소계	319	158	214	318	177	180	3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338	275	218	329	291	194	544	51.6	53.5	54.5	51.5	53.4	54.4	57.5		
	임시직	51	-86	86	56	-81	69	7	30.9	29.6	29.8	31.0	29.6	29.8	28.7		
	일용직	-29	-13	-82	-33	-10	-69	-135	11.2	10.9	9.9	11.2	10.9	10.0	8.4		
	고용주	-40	-8	-1	-39	-11	-6	-18	5.0	4.8	4.7	5.0	4.8	4.7	4.3		
	자영자	3	-5	0	6	-6	0	0	0.1	0.0	0.0	0.1	0.0	0.0	0.0		
	무급가족종사자	-4	-5	-7	-1	-6	-9	-2	1.3	1.2	1.1	1.3	1.2	1.1	1.1		
100~299인	소계	13	38	37	22	32	34	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44	56	43	49	51	42	63	82.0	83.6	84.3	81.8	83.4	84.2	87.0		
	임시직	-26	-15	-5	-21	-16	-8	-30	14.8	13.5	12.9	14.9	13.7	12.9	10.9		
	일용직	-4	-1	0	-5	-2	-1	-11	2.9	2.8	2.7	3.0	2.9	2.7	2.1		
	고용주	-2	-1	0	-2	-1	0	0	0.2	0.1	0.1	0.1	0.1	0.1	0.1		
	자영자	1	-1	0	1	-1	0	0	0.1	0.0	0.0	0.1	0.0	0.0	0.0		
	무급가족종사자	0	0	0	0	0	1	0	0.0	0.0	0.0	0.0	0.0	0.0	0.0		
300인 이상	소계	-55	28	117	-68	30	120	-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24	20	85	-31	23	88	-11	91.5	91.2	90.2	91.5	91.3	90.2	91.9		
	임시직	-24	10	34	-27	9	34	-34	7.2	7.6	8.8	7.2	7.5	8.8	7.3		
	일용직	-7	-1	-2	-10	0	-1	-4	1.2	1.1	1.0	1.2	1.2	1.0	0.8		
	고용주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자영자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무급가족종사자	0	-1	-1	0	-1	-1	0	0.1	0.0	0.0	0.1	0.0	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2〉 산업별 일자리변동 추이

(단위 : 천 명)

	2007		2008		2009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전 체	23,433	282	23,577	145	23,506	-72	23,420	283	23,587	167	23,503	-83	23,815	312
농림어업	1,723	-58	1,686	-37	1,648	-38	1,751	-56	1,702	-49	1,689	-13	1,596	-93
광업	16	1	23	6	23	-0	16	0	23	7	22	-0	20	-2
전기가스 등	86	10	90	4	96	5	85	11	91	6	97	6	78	-19
건설업	1,849	16	1,812	-37	1,720	-91	1,851	21	1,814	-37	1,721	-92	1,753	32
제조업	4,014	-42	3,963	-52	3,836	-126	4,017	-45	3,976	-40	3,831	-146	4,004	173
서비스업	15,745	356	16,004	260	16,183	179	15,701	353	15,980	280	16,143	162	16,364	221
도소매업	3,673	-38	3,631	-41	3,600	-32	3,670	-43	3,632	-38	3,595	-37	3,581	-14
운수업	1,247	54	1,248	1	1,247	-1	1,243	60	1,250	7	1,242	-8	1,280	37
숙박음식점업	2,049	-0	2,044	-5	1,936	-107	2,048	1	2,044	-4	1,941	-103	1,889	-51
출판영상 등	634	-17	627	-7	652	25	636	-18	627	-8	650	22	663	13
금융보험업	806	20	821	15	766	-55	801	16	824	22	759	-65	807	48
부동산임대업	505	6	489	-17	500	12	506	5	486	-20	498	12	518	20
기술과학 등	702	21	756	55	844	87	703	27	747	44	838	91	874	36
사업시설업	954	135	974	20	944	-29	947	141	969	22	945	-24	1,019	74
공공행정	797	-5	840	43	1,032	191	795	-12	845	50	1,028	183	958	-70
교육서비스업	1,740	38	1,784	44	1,831	48	1,737	42	1,784	48	1,826	41	1,812	-14
보건업 등	740	59	842	103	998	156	731	54	831	100	987	156	1,140	153
예술스포츠 등	371	-8	419	48	390	-28	368	-10	412	44	394	-18	378	-16
협회단체 등	1,291	72	1,297	6	1,211	-86	1,280	73	1,295	15	1,208	-87	1,218	10
가구내 고용활동	161	23	150	-11	147	-3	160	23	151	-9	147	-3	149	2
국제 및 외국기관	15	-4	16	1	12	-4	15	-5	17	1	13	-4	12	-0
하수폐기물 등	61	-0	66	5	72	6	60	-1	66	6	72	6	64	-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3〉 제조업 중분류별 고용 및 생산 변동 추이

(단위: %, 천 명)

	2004. 1-10		2009. 1-10		2010. 1-10		2004-08		2009. 1-10	2010. 1-10
	취업 자증 가율	생산 증가 율	취업 자증 가율	생산 증가 율	취업자 증가율	생산 증가 율	취업 자증 가율	생산 증가 율	고용증감	
제조업	2.3	11.6	-3.7	-5.6	4.5	17.9	-2.0	6.3	-146	173
경공업	-1.7	-2.1	-9.8	-8.9	4.0	2.1	-5.5	-0.2	-113	42
중공업	3.2	7.0	-3.7	-0.1	3.3	14.1	1.0	5.0	-57	49
화학공업	7.2	4.1	10.7	-11.1	7.4	6.1	-1.4	3.6	39	30
전자산업	8.0	10.5	-0.1	-0.9	6.5	19.7	0.4	7.3	-1	48
식음료	2.2	1.9	-37.8	-2.9	8.9	3.4	0.2	0.3	-210	31
담배제조업	2.1	10.1	-100.0	-1.6	-100.0	-8.5	-51.7	-0.7	-869	-0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2.7	-8.8	-81.4	-8.9	1.4	10.8	-9.5	-5.5	-735	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6.9	0.8	-66.9	-10.0	3.3	0.5	-5.8	6.5	-549	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3.3	-14.5	-89.7	-14.8	5.5	-4.2	-4.9	-2.8	-498	3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5.2	-3.1	-91.9	-15.7	-4.9	1.2	-5.0	-1.2	-400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3.5	3.0	-80.8	-6.1	6.3	6.0	-8.6	0.9	-282	4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4.9	-1.7	-70.8	-12.1	-6.1	11.0	-11.2	1.2	-225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5.6	3.0	-99.7	-0.3	-100.0	1.0	-58.9	1.6	-338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0.5	5.7	-35.6	1.6	5.2	5.7	-2.2	6.4	-113	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6.9	3.7	-40.3	-12.2	10.1	11.9	0.5	2.7	-132	2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4.9	-0.9	-65.6	-4.9	2.7	4.7	-6.0	1.5	-202	3
1차금속제조업	4.9	5.5	-62.7	-14.8	3.7	21.4	2.2	2.6	-198	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3.2	3.8	-1.5	-12.5	5.8	7.7	4.8	3.9	-5	1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8.6	30.7	39.5	-0.1	8.3	27.1	-2.3	15.6	131	3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4.9	2.0	-75.0	-2.5	11.0	14.8	-0.7	2.8	-252	9
전기장비제조업	7.6	5.9	-45.2	-0.2	0.4	14.1	10.2	3.6	-158	1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7.9	13.5	1.9	-16.7	9.5	45.0	-7.7	5.7	6	33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7	10.8	2.6	-13.8	6.1	29.6	1.5	4.7	9	22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2	12.4	-45.7	15.7	-14.7	-9.3	18.0	11.3	-180	-31
기타	-1.0	-5.3	-51.0	-11.7	2.1	9.1	-8.6	-4.2	-203	4

주: 표준산업분류 8차(2004~09년), 9차(2008~10년) 분류 기준에 매칭하여 분석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각월.